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활과학석사학위논문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김 현 정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지도교수 이 순 형

이 논문을 생활과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김 현 정

김현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이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남한 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이것이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가?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2세-19세 탈북 청소년 110명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한 청소년 151명, 총 26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은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20.0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정, 상관관계, K-평균 군집분석, 일원변량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탈북 청소년은 남한 청소년에 비해 내적귀인은 더 적게 하였으며, 타인귀인이나 우연귀인은 탈북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은 전체적으로 타인귀인이나 우연귀인에 비해 내적귀인을 더 많이 한다는 유사점을 보였다.

둘째,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성숙한 방어양식은 집단 간 차이가 없으나, 미성숙한 방어양식은 집단 간 차이가 있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은 미성숙한

방어양식에 비해 성숙한 방어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성숙한 방어양식에서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탈북 청소년은 남한 청소년에 비해 미성숙한 방어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셋째,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식을 소극적 대처방식에 비해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탈북 청소년은 남한 청소년에 비해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정서중심적 대처, 소망적 사고의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것은 탈북 청소년이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내적, 외적 자원을 남한 청소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 먼저 탈북 청소년을 살펴보면, 내적귀인은 성숙한 방어양식과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중심적 대처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타인귀인과 우연귀인은 성숙한 방어양식과 낮은 상관을, 미성숙한 방어양식과는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중심적 대처, 소망적 사고의 대처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숙한 방어양식은 모든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미성숙한 방어양식은 정서중심적 대처, 소망적 사고의 대처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남한 청소년을 살펴보면, 내적귀인은 성숙한 방어양식과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의 대처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타인귀인은 미성숙한 방어양식과 소망적 사고의 대처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우연귀인은 미성숙한 방어양식과 정서중심적 대처, 소망적 사고의 대처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숙한 방어양식은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의 대처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미성숙한 방어양식은 문제중심적 대처와 부적 상관을, 소망적 사고의 대처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섯째,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K-평균 군집분석을 한 결과, 탈북 청소년은 내적귀인/성숙한방어, 현실주의, 외적귀인/미성숙방어로 집단이 나누어졌다. 군집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살펴본 결과, 외적귀인/미성숙방어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문제중심적 대처를 더 적게 하였다. 현실주의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정서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하였으며, 소망적 사고의 대처는 현실주의, 외적귀인/미성숙방어, 내적귀인/성숙방어 집단 순으로 더 많이 하였다. 남한 청소년은 군집분석 결과, 내적귀인/성숙한방어, 위축/소심, 외적귀인/미성숙방어로 집단이 나누어졌다. 군집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살펴본 결과, 내적귀인/성숙한방어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문제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하였다. 사회적 지지 추구의 대처는 내적귀인/성숙한방어, 외적귀인/미성숙방어, 위축/소심 집단 순으로 더 많이 하였다. 외적귀인/미성숙방어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소망적 사고의 대처를 더 많이 하였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

향과 방어양식에 따른 군집분석에서 나타난 서로 상이한 군집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면, 탈북 청소년에서는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현실주의’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도 모두 평균보다 높은 대처를 보였다. 반면, 남한 청소년에서는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위축/소심’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도 모두 평균보다 낮은 대처를 보였다. 즉, 현실주의 집단의 탈북 청소년은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자신의 내적, 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위축/소심 집단의 남한 청소년은 현실에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적극적인 대처방식도 소극적인 대처방식도 하지 않은 채 현실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주요어 : 탈북 청소년,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 번 : 2007-23282

목 차

국문초록

I. 문제 제기	1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선행연구 고찰	5
1. 귀인성향	5
1) 귀인성향의 개념	5
2) 귀인성향의 문화적 차이	6
2. 방어양식	8
1) 방어양식의 개념	8
2)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의 관계	9
3. 스트레스 대처방식	10
1)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개념	10
2) 귀인성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11
3) 방어양식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11
4.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	13
III.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15
1. 연구문제	15
2. 용어의 정의	16
1) 귀인성향	16
2) 방어양식	16
3) 스트레스 대처방식	17
IV. 연구방법 및 절차	18
1. 연구대상	18

2. 연구도구	23
1) 귀인성향	23
2) 방어양식	24
3) 스트레스 대처방식	24
3. 연구절차	25
4. 자료의 분석	26
 V. 결과 및 해석	27
1.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전반적 경향과 차이	27
1)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차이	27
2)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방어양식 차이	28
3)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	30
2.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관계	32
1)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	32
2)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	34
3.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 군집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36
1)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 군집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36
2)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 군집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38
 VI. 결론 및 제언	40
1) 결론 및 논의	40
2) 의의 및 제한점	43

참고문헌	45
부 록	53
ABSTRACT	64

표 목 차

<표 IV-1> 연구대상의 구성	18
<표 IV-2> 탈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20
<표 IV-3> 남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22
<표 IV-4> 귀인성향 측정 문항과 신뢰도	23
<표 IV-5> 방어양식 측정 문항과 신뢰도	24
<표 IV-6> 스트레스 대처방식 측정 문항과 신뢰도	25
<표 V-1>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차이	27
<표 V-2>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방어양식 차이	29
<표 V-3>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	30
<표 V-4>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	33
<표 V-5>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	35
<표 V-6> 탈북 청소년의 최종군집별 중심점	36
<표 V-7> 탈북 청소년의 군집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 ...	37
<표 V-8> 남한 청소년의 최종군집별 중심점	38
<표 V-9> 남한 청소년의 군집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 ...	39

그 립 목 차

<그림 V-1>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 유형별 군집	36
<그림 V-2>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 유형별 군집	38

부 록 목 차

<부록 1> 탈북 청소년용 질문지	53
<부록 2> 남한 청소년용 질문지	57

I. 문제제기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07년 1만 명을 넘어선 이래 2010년 2만 명을 넘어, 2012년 10월 현재 약 2만 4천여 명이다(통일부, 2012). 특히 발달적 민감기에 있는 학령기 탈북 청소년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탈북 청소년은 생애주기 중 가장 중요한 발달 시기를 낯선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성인인 부모세대의 적응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닌다. 즉, 탈북 청소년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심리적, 신체적 발달 과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

탈북 청소년의 적응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학문적으로도 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응적 어려움의 내용과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었다(박윤숙, 2009; 이기영, 2002; 이순형, 2007; 이향규, 2007). 그러나 탈북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요한 발달적 시기에 있는 탈북 청소년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면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요구받으며, 그 결과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때 개인의 적응 수준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인지과정에 달려있다. 이것은 탈북 청소년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인지적인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귀인이란 사건의 원인을 찾는 인지적 과정이다(Heider, 1958).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가는 주어진 사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은 외상(trauma)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처 전략을 사용하며(Lazarus & Folkman, 1985), 상황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설명에 따라 다른 대처반응을 보인다(Brewer, 1988; Devine, 1989; Markus, 1977; Markus & Sentic, 1982). 즉, 사건 발생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지, 아니면 타인이나 상황에 있는지와 관련되는 귀인의 소재에 따라 개인은 일관성 있는 행동이나 반응을 보인다.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지적 용량이 부여될 때 귀인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Gilbert & Malone, 1995). 많은 연구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과 대인관계, 성취동기 등 개인의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귀인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귀인성향은 자신과 타인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행동 및 사건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지각하는 특성으로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Kim, Sandler & Tein, 1997; Lemerise & Arsenio,

2000; Murphy & Einsenberg, 1997).

인간은 사회적·물리적 외부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환경 속에서 발달해간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사건은 다른 스트레스 사건과 상호작용하여 부정적 귀인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Peterson, Seligman, & Vaillant, 1988). 이것은 높은 수준의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거나 병리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가진 사람이 부정적 귀인양식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다는 연구(King, 2008)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심원(2006)은 탈북 청소년들이 문화 정체성 영역에서 표면적 문화코드들은 비교적 빨리 습득하는 반면, 일상생활의 상호작용 양식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밝히며 그들의 정체성에 주목하였다. 탈북 청소년들의 북한 생활에 대해 심층 면접한 민성길(2001)의 연구를 살펴보면, 북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사회의 모습은 단조롭고 궁핍하며 엄격한 권위주의와 전체주의가 지배적인 분위기로 보여진다. 귀인의 발달에는 유전적 요인과 부모의 양육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의 부정적인 귀인성향은 모델링과 피드백을 통한 사회학습 경로에 따라 자녀의 귀인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oodyer, 1990; Lau & Eley, 2006).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특수한 환경적 특성은 북한 사회와 그 구성원의 귀인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귀인성향을 살펴본 Morris와 Peng(1994)은 귀인 현상이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그 기저에 문화적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밝힐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관점은 한 문화에서 출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당 문화에 의해 장기간, 다양한 문제에서 유사한 귀인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가정한 것이다. 독일은 동·서독 출신자의 갈등과 행동 차이의 원인을 귀인으로 설명하였다. 즉, 동독 출신자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동조를 많이 경험해서 외적 귀인을 많이 하며, 서독 출신자들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강한 자기 결정과 개인주의를 경험해서 내적귀인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Timmer, Westerhof, & Dittmann-Kohli, 2005). Capozza와 Rattazzi(1999)는 한 사회의 다수자(majority)와 소수자(minority)들이 귀인에 따라 상대방과 갈등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어떤 귀인방식을 통해 환경을 이해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부적응과 개인 간 갈등과 대립, 사회적 분열 등이 발생하거나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 또한 경험한 사회 체제와 문화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귀인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에는 인지양식과 정신역동적(psychodynamic) 관점의 이론적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정신역동이론은 의식적인 인지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무의식적 현상에 관심을 가지며 개인 내적 현상을 연구한다. 즉, 귀인이 의식적인 수준의 대처라면, 방어기제는 개인이 그들의 삶에서 위협적인 사건을 다룰 때 발생하는 무의식적 수준의 대처이다. 일반적으로 내적통제를 할수록 적응적 방어양식을 많이 사용하며 외적통제를 할수록 부적응적 방어양식을 많이 사용한다(Cramer, 2000; Fraley & Brumbaugh, 2007). 또한 성숙한 방어양식은 긍정적 감정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다(이강이, 1991; Steiner et al., 2007).

사회·문화적 환경은 무의식적 적응 방략인 방어기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체제 하에 뚜렷한 이질화를 보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집단주의적 특성과 강한 정치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폐쇄적 사회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통적·유교적 가치관과 가부장적 가족주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조영아·전우택·민성길(2004)은 비교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주민에 비해 감정 억압적 방어유형을 많이 사용하며, 특히 부정, 자제, 과제지향, 예견, 분리, 이타주의, 철수 기제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함을 밝혔다. 정신역학적 관점에 따르면, 개인이 부정적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영향을 미치는 주요 단서는 방어 유형의 성숙도이다. 성숙한 방어유형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스트레스의 영향은 스트레스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의식적인 수준의 인지와 무의식적 수준의 방어양식은 개인의 행동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루는 지와 관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적 배경과 그에 따른 사회 체계의 차이는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남한 청소년과의 비교연구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성장한 탈북 청소년을 이해하고 상호 작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탈북 성인과 남한 성인을 비교한 일부의 연구(김영란·김혜영, 2000; 독고순, 1999; 정진경, 2002; 조남국, 1993; 조영아, 2003; 채정민, 2006)를 제외하면, 청소년을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탈북 청소년 연구는 소수 사례의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와 실태 조사로 그들이 경험하는 문제점과 정책 제언 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풍부한 맥락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효율적이지만 탈북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들의 귀인성향과 그 기저에 있는

방어양식을 알아보고, 그 결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살펴봄으로써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탈북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학교, 사회 적응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후 남북한 사회의 심리적 통합을 달성하는 데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기된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귀인성향

1) 귀인성향의 개념

인간은 자신 혹은 타인의 행동을 인식했을 때 그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가는 주어진 상황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인과관계에 따라 제각각의 해결방식을 가진다(Carroll, 1978). 이처럼 어떠한 사건이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는 인지적인 과정을 귀인(Attribution)이라고 한다(Heider, 1958). 귀인이론은 1950년대를 기점으로 인간 행동이 인지적인 생각에 의해 변화된다는 인지주의적 관점의 흐름을 타고 발전되었다.

Heider(1958)는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과정에 대하여 포괄적인 이론을 처음 제시한 연구자이다. 그는 인간은 누구나 타인 또는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이 때 관찰자가 지각하는 현상적 인과가 현상의 이해와 해석, 또는 이에 대한 반응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Rotter(1966)는 귀인의 내외요인을 통제소재(locus of control)라고 부르고, 귀인의 차원을 내적-외적 단일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단일 차원에 따라, 개인은 내적 통제소재 또는 외적 통제소재 중 하나를 가진다. 내적 귀인(Internal Attribution)은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를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기인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신념의 성향을 의미한다. 외적 귀인(External Attribution)은 행동의 결과를 상황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보상(강화)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에 따른 개인의 지각 차이는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지각 또는 신념의 소재성 차원을 귀인성향이라고 한다(안귀덕, 1986).

이후, Weiner(1972, 1979)와 Abramson 등(1980)은 성공과 실패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능력, 노력, 운, 과제난이도로 나누고 이를 네 가지 인과적 차원인 소재성, 안정성, 전반성, 통제성 차원을 만들어 귀인이론을 체계화시켰다. 소재성 차원은 성패

의 원인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는지 또는 외부에서 찾는지와 관련되며, 안정성 차원은 사건의 원인이 얼마나 안정적인 것인지를, 전반성 차원은 결과의 원인에 대한 신념이 다른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통제성 차원은 자신이 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지에 대한 인지적 판단에 초점을 두는 차원이다.

Levenson(1981)은 귀인성향을 내외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규정하지 않고, 내적귀인과 외적귀인을 서로 독립적 차원으로 보았다. Levenson(1981)에 따르면, 개인은 어떤 상황에서는 내적귀인을 가지기도 하고, 외적 귀인을 가질 수도 있으며 또는 상황에 따라 내적귀인과 외적귀인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다. 그는 또한 외적귀인의 점수 분포 범위가 내적귀인보다 훨씬 넓은데 주목하여 분석한 결과, 타인귀인과 우연귀인이 공존하는 것을 발견하였다.¹⁾ 즉, 타인귀인은 보상이 타인의 힘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우연귀인은 보상이 우연이나 행운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Levenson(1981)의 세 가지 차원의 분류를 지지하고 있다(안귀덕, 1986).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Levenson(1981)이 제안한 세 가지 차원의 개념구조(내적귀인, 타인귀인, 우연귀인)로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귀인성향의 문화적 차이

귀인에 관한 초기 연구는 과학적인 인과 규명을 밝히기 위해 시작되었지만(Heider, 1958; Weiner 1979),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문화적 차이를 밝히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문화적 배경과 그에 따른 사회 체계의 차이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한 문화에서 출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사한 귀인 방식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가정한 것이다(Morris & Peng, 1994). 실제로 많은 비교 문화적 연구들이 귀인성향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설명한다. Lee와 Herzog(1996)는 동일 사건에 대한 신문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신문 기사에 비해 홍콩의 기사들이 더 상황적인 귀인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흐름의 연구는 미국인과 아시아인의 문화적 차이가 스스로를 보는 관점의 차이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Kitayama et al., 1997). Markus와 Kitayama(1991)는 일본 학생들이 지적 능력, 개성, 운동 능력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들을 평균 수준으로 지각하

1) Levenson(1973,1974)은 외적귀인을 타인귀인(Power others)과 우연귀인(Chance)으로 구분하는 것이 귀인성향을 더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Levenson의 세 척도간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타인귀인(P) 척도와 우연귀인(C) 척도는 상관계수가 .54로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귀인(P) 척도와 내적귀인(I) 척도, 그리고 우연귀인(C) 척도와 내적귀인(I) 척도는 -.25에서 .19로 상관이 낮거나 무의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타인귀인(P) 척도와 우연귀인(C) 척도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나 독립적 차원임을 제시하였다.

는 반면, 미국 학생들은 동일한 영역에서 자신들을 평균 이상으로 뛰어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 대만 등의 다른 아시아 국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되었다(Lee et al., 1995). Fry와 Ghosh(1980)의 아시아 학생과 코카서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시아 학생이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모두 자신의 능력에 귀인하는 반면, 코카서스인들은 성공은 자신에게, 실패는 운 또는 과제의 어려움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이와 같이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는 상황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통합을 시도할 때, 이것은 상호 간 오해와 갈등이 발생될 여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에 귀인과 관련된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동독 출신자와 서독 출신자가 경험하는 갈등의 원인을 귀인에서 찾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독일의 연구 결과, 동독 출신자들은 외적귀인을 많이 하고 서독 출신자들은 내적귀인을 많이 한다는 점이 밝혀졌다(Strateman, 1992). Timmer, Westerhof, Dittmann-Kohli(2005)의 연구에서도 동독 출신자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동조를 많이 경험해서 외적귀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독 출신자들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강한 자기 결정과 개인주의를 경험해서 내적귀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pozza와 Rattazzi(1999)는 한 사회의 다수자(majority)와 소수자(minority)가 귀인에 따라 상대방과 갈등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어떠한 귀인방식을 통해 환경을 이해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부적응, 개인 간 갈등과 대립, 사회적 분열 등이 발생되거나 강화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이 앞서 경험한 갈등과 사회통합의 문제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문제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을 남한 청소년과 비교해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2. 방어양식

1) 방어양식의 개념

방어기제는 정신구조간의 내적 갈등이나 외부의 환경적 요구와의 갈등에 직면하여 불안이 일어날 때 자아가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책략이다(Freud, 1897).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에서 야기되는 불안을 피하고자 본능적으로 동기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방어기제를 사용한다(이강이, 1991). 방어에 대한 초기 이론들은 방어의 심리내적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후기 이론에서는 방어를 중요 타자와의 친밀한 관계 맥락에서 발생하는 관계 및 인지적 패턴으로 보았으며, 이것은 대상관계 이론, 자기심리학, 미국 대인관계 이론들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자아심리학(ego psychology)이 발달하면서 적응양식으로서 방어기제의 긍정적 개념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Vaillant(1971)는 자아의 방어기제가 부적응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적응적인 대처양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은 방어의 성숙도이다.

방어기제는 부적응적인 기능을 하는 방어기제에서부터 적응적 기능을 하는 방어기제에 이르기까지 위계화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Haan, 1963; Vaillant, 1971). 방어의 성숙도 위계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연구자는 Vaillant(1971, 1976)이다. Vaillant(1971)는 적응수준에 따라 방어기제를 네 범주로 묶어 미성숙-성숙-정신병리-정신건강의 차원으로 배열하였다. 그는 대학생 95명에 대해 30년간에 걸쳐 방어기제와 적응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일반적으로 미성숙한 방어양식은 적응과 부적응으로 상관되며 성숙한 방어양식은 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임을 확인하였다(Vaillant, 1971).

개인이 어떠한 적응기제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회·문화적 환경은 위협이 되는 외부 자극에 대처하고 적응해나가는 방식이나 외부자극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Slavin, Rainner, McCreary & Gowda, 1991; Kim, 1994).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사회화되고(조용환, 1997), 그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며 적응해 나간다. 이것은 문화에 따른 특징적인 적응적 대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사회체제와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뚜렷한 이질화를 보였다. 북한의 특수한 사회구조는 구성원들의 무의식적인 적응 방략인 방어양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탈

출과정과 제 3국에서의 체류생활 등 남한 입국 과정에서 다양한 외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의 외상경험은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고통은 심리적 후유증으로 남아 약 29.5%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다(홍창형, 2005). 그러나 탈북 청소년의 방어양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남한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방어양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의 관계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통과 시련에 직면하고 저마다 다양한 반응과 행동으로 상황을 헤쳐 나간다.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놀라운 회복탄력성(resilience)으로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작은 사건에도 쉽게 취약성을 나타낸다. 인지 이론가들은 개인의 위협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데, 그 중 부적응적 사고와 믿음을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지목한다(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Gross, & Munoz, 1995; Peterson, Seligman, & Valliant, 1988). 정신역학적(Psychodynamic) 관점에서도 부정적인 사건에 대하여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인으로 개인이 가지는 방어기제의 성숙도를 꼽는다. 성숙한 방어양식은 현실 인식의 왜곡 없이 위협적인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미성숙한 방어양식은 종종 심각한 현실 왜곡을 수반한다(Crammer, 1991; Valliant, 1977). 결국, 성숙한 방어양식의 사용은 개인을 건설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반면, 미성숙한 방어양식은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인지적 관점과 정신역동적 관점 모두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개인을 보호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대체로 합리적인 귀인행동을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거나,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위기상황에서는 나름대로의 적응적 조절을 보인다. 적응적 조절은 방어의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귀인이 의식적인 수준의 대처라면,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인 수준의 대처이다. 이에 따라 두 개념은 똑같은 경로의 중복되는 구조라기보다는 개인의 전반적인 대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Kwon & Lemon, 2000).

3. 스트레스 대처방식

1)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개념

스트레스는 개인의 항상성(homeostasis)을 변화시키는 외부 환경자극과 이것을 처리하는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요인,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부적응 반응이라는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복잡한 개념이다(Kaplan, 1996). 개인의 적응은 스트레스 사건 자체보다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더 설명력이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민하영, 1999; 박희석·오상우·손정락, 1993; Band & Weisz, 1988), 스트레스 대처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란, 한 개인이 자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외적 혹은 내적 요구를 다루는 과정으로 스트레스를 다루어가는 노력이다(Lazarus & Folkman, 1984). 즉, 스트레스 대처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하기 위한 노력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조유수, 2009).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연구자들마다 유사한 개념으로 분류되어 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처방식의 차원은 Folkman과 Lazarus(1984)가 제시한 문제 중심적(problem-focused) 대처와 정서 중심적(emotion-focused) 대처이다. 문제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원을 변화시키거나 없애기 위해 상황을 실제로 다룸으로써 사람과 환경 그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반응이며,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거나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과 같이 문제 자체를 다루려 노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정보 수집하기, 계획 세우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하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정서중심적 대처는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정적, 정서적 고통을 조절하는 반응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거나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회피, 최소화, 거리 두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발달과 적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Folkman과 Lazarus(1984)는 어떤 대처방식이 다른 대처방식보다 더 좋거나 나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사람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환경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이나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의 근원에 대처하는 것이 더 유리하면 문제 중심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게 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회피하거나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자아나 상황의 긍정적 측면에 선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감정을 통제하려는 소극적 대처를 선택할 수 있다.

2) 귀인성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사건 발생의 원인과 해결 권한을 어디에 두느냐는 귀인성향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정서반응과 행동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은 행동에 뒤따르는 강화를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한다. 자기 스스로가 운명의 지배자라는 신념을 가진 내적 통제자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고(Davis & Phares, 1967), 그 결과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정보의 습득과 이용에서도 외적 통제자보다 뛰어난 것을 보여준다(Breen & Prociuk, 1978; Lefcourt, 1982; Rotter, 1966). 이형초와 최정윤(1993)은 모든 상황을 변화가능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적 통제집단이 세상일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는 외적 통제집단보다 문제해결 상황에서 긍정적인 기대와 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한다고 하였다. Husaini와 Neff(1981)는 내적 통제자는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반면, 외적 통제자는 매일의 사건에서 무기력을 학습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내적 통제자는 외적 통제자보다 자신이 운명을 자율적으로 지배하고, 사건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Rotter, 1966). 이처럼 귀인성향에 따라 행동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개인의 행동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인성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방어양식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인간은 누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양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적절한 방어기제의 사용은 실패로부터의 좌절감을 완화하고 불안을 감소하고 정서적 상처를 달래며 또 자존심을 유지하는데 기본적 수단이 된다. 방어양식과 적응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 따르면, 성숙한 방어양식을 주로 사용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Conte & Plutchik, 1989), 자아발달 수준이 높으며(Bond et al., 1983),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Vaillant & Vaillant, 1990). 이에 비해 미성숙한 방어양식은 부적응의 지표가 되며(Cooper & Perry, 1992), 미성숙한 방어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심리·정신적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 전반적인 기능 수준이 낮았다(Bond, Guzder, Paris, & Zweig-Frank, 1996; Delucchi, Fossate, Linguardi, Lonati, Maffei, Vanzuli, 1999; Vaillant, 1994). 다시 말해, 적응적 역할을 하는 성숙한 방어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건강하게 감소될 수

있지만, 미성숙하거나 신경증적인 수준의 방어양식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성격적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Atkinson & Gim, 1989). 일반적으로 방어가 성숙할수록 자신에게 부담스럽고 문제가 되는 사고나 감정들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방어가 미성숙할수록 문제가 되는 사고나 감정들은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Vaillant, 1976, 1977). 이처럼 방어양식과 대처방식은 성숙도에 따라서 적응에 차이를 보인다. 주로 성숙한 방어양식은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 추구의 대처와 관련이 있고, 미성숙한 방어양식은 정서중심적 대처, 소망적 사고의 대처와 관련이 있다(Erickson, Feldman, & Steiner, 1997). 김우석(2004)은 적극적 대처방식이 성숙한 방어양식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미성숙한 방어양식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에 소극적 대처방식은 미성숙한 방어유형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개인의 방어양식의 성숙도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았을 때,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인지뿐만 아니라 무의식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

북한이탈주민²⁾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발달적 민감기에 있는 학령기 탈북 청소년이 증가하면서³⁾, 많은 연구들은 탈북 청소년이 남한 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탈북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도록 기여하였지만 여전히 탈북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그들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한 청소년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비교연구를 살펴보면, 박정서(2011)는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 비교 연구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에는 북한에서의 거주기간이 아니라 남한에서의 거주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히며 탈북 청소년 내 다양한 차이와 경험을 반영한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정우(2006)의 연구는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사회의식 비교를 통해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은 분배정의와 평등에 대해 비슷한 응답경향을 보임을 밝혔다. 또한 탈북 청소년의 남한 사회와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주목하며 이들의 사고방식이 크게 이질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혜영(2007)은 탈북 아동과 남한 아동이 도움수혜자와의 관계 및 연령에 따라 친사회적 의사결정 및 도덕 추론의 양상이 달라지고, 대인폭력 의도와 연령에 따라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판단

2)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칭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을 통합하여 지칭할 때는 공식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주로 사용하되, 청소년을 지칭할 때에는 공식 명칭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탈북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3) 탈북 청소년 입국 현황과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은 다음과 같다(통일부, 2012년)

○ 탈북 청소년 입국 현황('12.4)

(단위:명)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6~20세	124	211	220	331	224	336	366	378	464	321	501	3,069

○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12.4)

(단위:명)

구분	정규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현황	602	602	162	189	212	225	210	2,202
	1,204		351		437			
	1,992							

* 대안교육시설은 전일제 민간교육시설에서 수학하는 학생임.

및 도덕추론의 양상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탈북 아동이 남한 아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도덕추론과 판단을 보임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내적 성숙의 힘보다는 외적 사회경험이 행동변화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사회학습이론의 가정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한편, 정향진(2005)은 탈북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에 비해 과잉된 감정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며, 이것이 탈북 청소년의 계급적 특성이거나 탈북 과정에서의 특수한 경험에 의해 빚어진 것을 수도 있지만, 북한에서의 감정경험과 표현에 관한 사회화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 연구는 현상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두 집단 간의 실질적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에서 탈북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이질감과 부적응 등이 보고되었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와 같은 사고와 행동의 결과의 기저에 있는 의식적, 무의식적 사고 과정에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심리적 증상 간의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소극적 대처를 사용할수록 심리적 부적응의 경험이 많음이 나타났다(임지영·신현균·김희연, 2010). 그러나 소극적 대처 또한 적응을 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므로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인지적 평가인 귀인성향과 무의식적 방어양식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탈북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하여 앞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한다.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남한 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이것이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1-1.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1-2.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방어양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1-3.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 2-1.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 2-2.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 군집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가?

3-1.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 군집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가?

3-2.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 군집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가?

2. 용어의 정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귀인성향(Attribution Style)

사람들은 자기 혹은 타인의 행동을 지각했을 때 그 행동의 원인을 추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추리과정을 귀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개인의 성공 혹은 실패와 같은 성취도에 대한 원인추론을 ‘성패귀인’이라고 한다. 이것은 원인의 소재(Locus of Casuality)를 찾는 차원으로 성패의 원인을 개인 내부에서 찾아가, 아니면 외부에서 찾아가의 문제로서 내적-외적(Internal vs External) 차원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처럼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보상(강화)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에 따른 개인의 지각 차이는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지각 또는 신념의 소재성 차원을 귀인 성향이라고 한다(안귀덕, 1986).

이 연구에서는 Levenson의 분류에 따라 귀인성향을 내적귀인, 타인귀인, 우연귀인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내적귀인은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를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기인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신념의 성향을 의미한다. 타인귀인은 행동의 결과를 타인의 힘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우연귀인은 행동의 결과를 우연이나 행운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방어양식

Freud에 의해 처음 소개된 방어(defense)는 정신내적 갈등이나 외적인 환경적 요구와의 갈등에 직면하여 불안이 일어날 때, 자아(ego)가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사용

하는 방법이다(Freud, 1897). 방어는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정신 과정이며, 인간은 누구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다양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Vaillant(1971, 1976)는 방어가 적응의 위계에 따라 조직화될 수 있음을 밝히며, 개별 방어기제보다는 방어양식(defence style)을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설명하였다. 개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방어가 성숙할수록 심리내적인 갈등이나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잘 대처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방어양식을 성숙한 방어양식과 미성숙한 방어양식으로 구분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성숙한 방어양식은 방어기제 중 승화, 유머, 예상, 억제, 이타 유형을 포함하며, 미성숙한 방어양식은 실연, 퇴행, 소극적 공격, 투사, 대체, 신체화증상을 포함한다.

3)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란 개인에게 부담이 되거나 자신이 소유한 자원을 넘어서다고 평가되는 특정한 요구를 관리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이다(Lazarus & Folkman, 1984). 김정희(1987)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재구성하여 적극적 대처로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소극적 대처로 정서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네 가지 대처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김정희(1987)와 같이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즉, 적극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의 근원에 접근하여 문제가 되는 환경 자체를 바꾸기 위한 문제중심적 대처와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소극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겪는 감정을 통제하는 정서중심적 대처와 스트레스 유발 상황과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소망하는 방법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적극적 대처방식인 ‘문제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의 근원인 문제 해결에 작용하려는 노력이며, ‘사회적 지지’는 사건이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처방식이다. 소극적 대처방식인 ‘정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감정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이며, ‘소망적 사고’는 스트레스 유발 상황이나 사건과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함으로써 대처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조유수, 2008).

IV.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로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대상의 선정과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연구도구와 연구절차 및 조사된 자료의 분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탈북 청소년을 ‘북한에서 출생하여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만 12세-19세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탈북 청소년 전체의 약 60%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통계자료에 따라(통일부, 2012),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탈북 청소년을 눈덩이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비교집단인 남한 청소년은 탈북 청소년 연령집단의 평균연령이 되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표 IV-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전체 연구대상은 탈북 청소년 110명, 남한 청소년 151명으로 총 261명이었다. 탈북 청소년 110명 중 남학생은 57명, 여학생은 53명이었으며, 남한 청소년 151명 중 남학생은 67명, 여학생은 84명이었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일반적 특징은 <표 IV-2>와 <표 IV-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탈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실제 학년은 중학생(1-3학년)인 경우가 40명(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4-6학년)인 경우가 31명(28.2%), 고등학생(1-3학년)인 경우가 31명(28.2%)으로 같았다. 검정고시 준비 중인 탈북 청소년은 8명(7.3%)이었다.

<표 IV-1> 연구대상의 구성

단위: 명

집단	성별	전체
탈북 청소년	남	57
	여	53
	소계	110
남한 청소년	남	67
	여	84
	소계	151
전체		261

현재 거주지가 서울인 탈북 청소년은 71명(64.5%)이었으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는 39명(25.5%)이었다. 남한 거주 기간은 2년 이상-4년 미만이 52명(47.3%)으로 가장 많았으며, 2년 미만은 40명(36.4%), 4년 이상은 18명(16.4%)이었다.

종교를 살펴보면, 기독교인 경우가 48명(4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주교가 14명(12.7%), 불교가 4명(3.6%), 원불교가 2명(1.8%)이었다. 종교가 없는 탈북 청소년도 42명(38.2%)으로 높았다.

자주 왕래하며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는 탈북 청소년은 94명(85.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지자가 없는 경우는 16명(14.5%)이었다. 자주 왕래하며 의지가 되는 모임 또는 단체에 대한 문항에서는 지지 단체가 없는 경우가 50명(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원, 공부방이 33명(30.0%), 종교단체가 18명(16.4%), 기타 9명(8.2%)이었다.

탈북 청소년이 남한에서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학교 적응이 41명(37.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25명(22.7%), 경제적 문제가 24명(21.8%), 청소년 문화적응이 11명(10.0%) 순이었다. 청소년 문화적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언어적응이 52명(4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구관계가 38명(34.5%)으로 높았다. 학교 적응에서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남북한 학제 차이로 인한 문제가 44명(40.0%), 학급 내 남한 청소년과의 연령 차이가 25명(22.7%), 진로 문제가 18명(16.4%), 교사와의 관계가 15명(13.6%),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탈북 청소년은 8명(7.3%)이었다.

탈북 청소년이 남한 사회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도움을 주는 사람(복수응답)은 선생님이 47명(28.8%)으로 가장 많았고 친부모가 28명(17.2%), 친척이 22명(13.5%), 남한친구 또는 선후배가 22명(13.5%) 등이었다.

남한에서 함께 사는 가족(복수응답)은 친어머니가 69명(43.4%)로 가장 많았으며 친아버지는 23명(14.5%), 형제자매는 22명(13.8%), 남한 양부모는 15명(9.9%), 친척은 15명(9.9%) 등이었다.

<표 IV-2> 탈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변수	구분	빈도(%)
현재 학년	초등학교(4-6학년)	31(28.2)
	중학교(1-3학년)	40(36.4)
	고등학교(1-3학년)	31(28.2)
	검정고시 준비	8(7.3)
거주지	서울	71(64.5)
	경기	39(25.5)
남한 거주 기간	2년 미만	40(36.4)
	2년 이상-4년 미만	52(47.3)
	4년 이상	18(16.4)
종교 종류	기독교	48(43.6)
	천주교	14(12.7)
	불교	4(3.6)
	원불교	2(1.8)
	없음	42(38.2)
자주 왕래하며 의지가 되는 사람	있음	94(85.5)
	없음	16(14.5)
자주 왕래하며 의지가 되는 모임이나 단체의 종류	종교단체	18(16.4)
	학원, 공부방	33(30.0)
	없음	50(45.5)
	기타	9(8.2)
남한에서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청소년 문화적응	11(10.0)
	학교 적응	41(37.3)
	경제적 문제	24(21.8)
	사회적 관계망	25(22.7)
	기타	9(8.2)
청소년 문화적응에 가장 어려운 문제	놀이문화	2(1.8)
	언어적응	52(47.3)
	친구관계	38(34.5)
	이성관계	6(5.5)
	기기 사용	5(4.5)
	없음	7(6.4)
학교 적응에 가장 어려운 문제	학제 차이	44(40.0)
	연령 차이	25(22.7)
	진로 문제	18(16.4)
	교사와의 관계	15(13.6)
	없음	8(7.3)
어려움을 느낄 때 도움을 주는 사람 (복수 응답)	남한의 양부모	8(4.9)
	친척	22(13.5)

현재 남한에서 함께 사는 가족 (복수 응답)	친부모	28(17.2)
	형제자매	8(4.9)
	선생님	47(28.8)
	의료인, 법률가	1(0.6)
	북한친구, 선후배	8(4.9)
	남한친구, 선후배	22(13.5)
	종교단체 사람	10(6.1)
	사회단체 사람	1(0.6)
	정부, 공공기관 사람	4(2.5)
	이웃	4(2.5)
	합계	163(100)
	친아버지	23(14.5)
	친어머니	69(43.4)
	형제자매	22(13.8)
	남한 양부모	15(9.4)
	친척	15(9.4)
	단독	8(5.0)
	후견인 및 보호시설	3(1.9)
	남한 친구, 선배	1(0.6)
	북한 친구, 선배	3(1.9)
	합계	159(100)

남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중학생이 100명(66.2%), 고등학생이 51명(33.8%)이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남한 청소년은 88명(58.3%), 경기지역은 63명(41.7%)이었다. 종교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남한 청소년이 78명(51.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인 경우가 42명(27.8%), 불교가 16명(10.6%), 천주교가 15명(9.9%)이었다. 자주 왕래하며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143명(94.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지자가 없는 경우는 8명(5.3%)이었다.

남한 청소년이 현재 느끼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기타가 83명(5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관계망이 35명(23.2%), 경제적 적응이 18명(11.9%), 학교 적응이 11명(7.3%), 기타 6명(4%), 청소년 문화적응이 4명(2.6%) 순이었다.

어려움을 느낄 때 도움을 주는 사람(복수응답)은 친구가 112명(30.2%)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가 92명(24.8%), 아버지가 70명(18.9%), 형제자매가 49명(13.2%) 등이었다.

<표 IV-3> 남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변수	구분	빈도(%)
현재 학년	중학교(2학년)	100(66.2)
	고등학교(2학년)	51(33.8)
거주지	서울	88(58.3)
	경기	63(41.7)
종교 종류	불교	16(10.6)
	기독교	42(27.8)
	천주교	15(9.9)
	원불교	0(0)
	없음	78(51.7)
자주 왕래하며 의지가 되는 사람	있음	143(94.7)
	없음	8(5.3)
현재 느끼는 가장 어려운 문제	청소년 문화적응	4(2.6)
	학교 적응	11(7.3)
	경제적 적응	18(11.9)
	사회적 관계망	35(23.2)
	기타	83(55.0)
어려움을 느낄 때 도움을 주는 사람 (복수 응답)	아버지	70(18.9)
	어머니	92(24.8)
	형제자매	49(13.2)
	친구	112(30.2)
	선생님	32(8.6)
	종교단체 사람	11(3.0)
	사회단체 사람	2(0.5)
	기타	3(0.8)
	합계	371(100)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이며 각 척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귀인성향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Levenson(1981)이 개발한 귀인성향 척도(IPC Scale: The Internal, Powerful Others and Chance Scale)를 연구자가 직접 번역하고, 아동학 전공자의 확인을 거쳐 사용하였다. Levenson(1981)의 귀인성향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내적귀인, 타인귀인, 우연귀인)별로 8개 문항씩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약간 아니다’(3점), ‘약간 그렇다’(4점), ‘그렇다’(5점), ‘정말 그렇다’(6점)로 응답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에 대한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귀인성향의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Chronbach's α)는 내적귀인 .69, 외적귀인 .82, 우연귀인 .79로 <표 IV-4>와 같다.

<표 IV-4> 귀인성향 측정 문항과 신뢰도

하위요인	해석	문항수	신뢰도(α)
내적귀인 (I)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성향이 강함.	8	.69
타인귀인 (P)	점수가 높을수록 강력한 타인이 자신의 인생이나 행동 결과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정도가 높음.	8	.82
우연귀인 (C)	점수가 높을수록 우연이나 행운이 자신의 인생이나 행동 결과를 좌우하는 것으로 믿는 정도가 높음.	8	.79

2) 방어양식

방어양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Bond, Gardner, Christian과 Sigal(1983)이 개발한 방어양식 질문지(DSQ : Defense Style Questionnaire)를 이강이(1991)가 수정·번안하여 청소년의 방어양식 조사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11가지의 방어기제에 대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7점)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에 해당되는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방어기제 중 승화, 유머, 예상, 억제, 이타 유형은 성숙한 방어양식에 속하며 실연, 퇴행, 소극적 공격, 투사, 대체, 신체화증상은 미성숙한 방어양식에 포함된다. 방어양식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Chronbach's α)는 성숙한 방어양식 .76, 미성숙한 방어양식 .88로 <표 IV-5>와 같다.

<표 IV-5> 방어양식 측정 문항과 신뢰도

방어양식	방어유형	문항수	신뢰도(α)
성숙한 방어양식	승화, 유머, 예상, 억제, 이타	15	.76
미성숙한 방어양식	실연, 퇴행, 소극적 공격, 투사, 대체, 신체화증상	21	.88

3) 스트레스 대처방식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Folkman과 Lazarus(1988)가 개발한 대처방식척도(Ways of Coping Questionnaire)를 조유수(2009)가 수정·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구별된다. 적극적 대처방식에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의 대처가 포함되며 소극적 대처방식에는 정서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의 대처방식이 포함된다(김정희, 1987; 조유수, 2009).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어느 정도 그렇다’(2점), ‘꽤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대처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내적 합치도(Chronbach's α)는 문제중심 .86, 사회적지지 .76, 정서중심 .73, 소망적 사고 .62로 <표 IV-6>과 같다.

<표 IV-6> 스트레스 대처방식 측정 문항과 신뢰도

대처방식		정의	문항수	신뢰도(α)
적극적 대처	문제 중심	스트레스 유발 상황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과 환경 그 자체를 바꾸게 하려는, 즉 스트레스의 근원에 작용하려는 노력.	16	.86
	사회적 지지	사건이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처방식	5	.76
소극적 대처	정서 중심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감정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 정서적 고통의 조절을 통해 삶과 환경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려는 노력	4	.73
	소망적 사고	스트레스 유발 상황이나 사건과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함으로써 대처하는 방식	7	.62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이 연구에서는 남한 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2012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탈북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수정된 설문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북 청소년이 설문 내용을 이해하고 시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25분이었다.

2) 본조사

본조사는 2012년 9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예비조사 대상자에게 그들이 아는 탈북 청소년을 소개 받아 설문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탈북 교사를

소개 받아 교사를 통해 탈북 청소년에게 설문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교사를 통해 설문지 조사를 한 경우에는 교사에게 연구목적 및 문항내용, 응답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10월 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남한 청소년은 탈북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중, 고등학교 교사의 협조를 받아 교사가 일괄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합하였다. 남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교사에게 실시 방법 및 주의 사항을 설명하여 남한 청소년이 응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탈북 청소년의 경우, 총 117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전량 회수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7부를 제외한 총 11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한 청소년은 배부한 전량인 180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 29부를 제외한 총 15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20.0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정, 상관관계, 군집분석, 일원변량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빈도분석과 백분율 분석을 통해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각 집단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를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을 투입하여 비계층적 군집방법인 K-평균 군집분석과 일원변량분석,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위와 같은 연구방법에 따라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제시하면서 관련 선행연구와의 일치 여부 및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한다.

1.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전반적 경향과 차이(연구문제 1)

1)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차이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의 전반적 경향과 집단 간 차이는 <표 V-1>과 같다. 먼저 귀인성향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탈북 청소년의 내적귀인의 평균점수는 6점 만점에 4.23점으로 ‘약간 그렇다’(4점), ‘그렇다’(5점)에서 ‘약간 그렇다’보다 조금 높은 점수였다. 타인귀인의 평균점수는 3.63점, 우연귀인의 평균점수는 3.80점으로 ‘약간 아니다’(3점), ‘약간 그렇다’(4점)에서 ‘약간 그렇다’에 못 미치는 점수를 보였다. 남한 청소년의 내적귀인의 평균점수는 4.45점이었으며, 타인귀인의 평균점수는 3.04점, 우연귀인의 평균점수는 3.09점으로 ‘약간 아니다’(3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 모두 내적귀인의 평균점수가 타인귀인과 우연귀인의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내적귀인, 타인귀인, 우연귀인 모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내적귀인은 탈북 청소년의 점수(M=4.23)가 남한 청소년의 점수(M=4.45)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t=-2.92, p<.01$).

<표 V-1>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차이

귀인성향	탈북 청소년 (N=110)	남한 청소년 (N=151)	t
	M(SD)	M(SD)	
내적귀인	4.23(.67)	4.45(.57)	-2.92**
타인귀인	3.63(.73)	3.04(.86)	5.83***
우연귀인	3.80(.61)	3.09(.78)	8.27***

** $p<.01$, *** $p<.001$

반면에 타인귀인은 탈북 청소년의 점수($M=3.63$)가 남한 청소년의 점수($M=3.04$)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t=5.83$, $p<.001$). 우연귀인은 타인귀인과 마찬가지로 탈북 청소년의 점수($M=3.80$)가 남한 청소년의 점수($M=3.09$)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t=8.27$, $p<.001$). 종합해 보면,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 모두 타인귀인이나 우연귀인에 비해 내적귀인을 더 많이 한다. 탈북 청소년은 남한 청소년에 비해 내적귀인을 더 적게 하는 반면, 타인귀인이나 우연귀인은 탈북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채정민(2006)이 남한과 북한의 성인을 대상으로 귀인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대체로 내적귀인을 많이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남한 사람이 내적귀인 경향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동독 출신자와 서독 출신자의 귀인 비교연구를 통해 동독 출신자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동조를 많이 경험해서 외부귀인을 많이 하고, 서독 출신자들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강한 자기 결정과 개인주의를 경험해서 내부귀인을 많이 한다고 밝힌 Strateman(1992)과 Timmer와 동료들(2005)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두 집단 모두 내적귀인을 많이 한다는 점에서 두 집단의 유사성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남북한의 문화와 심리의 동질성-이질성 논란과 관련하여 채정민(2006)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집단이 ‘같다’ 혹은 ‘다르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2)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방어양식 차이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방어양식의 전반적 경향과 집단 간 차이는 <표 V-2>와 같다. 먼저 방어양식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탈북 청소년의 성숙한 방어양식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62점, 미성숙한 방어양식의 평균점수는 4.18점으로 ‘중간이다’(4점), ‘조금 그렇다’(5점) 사이의 점수를 보였다. 남한 청소년의 성숙한 방어양식의 평균점수는 4.70점이었으며, 미성숙한 방어양식의 평균점수는 3.52점으로 ‘조금 그렇지 않다’(3점), ‘중간이다’(4점) 사이의 점수분포를 보였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 모두 성숙한 방어양식의 평균점수가 미성숙한 방어양식의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방어양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미성숙한 방어양식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숙한 방어양식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성숙한 방어양식은 탈북 청소년의 점수($M=4.18$)가

남한 청소년의 점수(M=3.52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6.26, p<.001$). 즉,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 모두 미성숙한 방어양식보다는 성숙한 방어양식을 많이 사용하며, 남한 청소년에 비해 탈북 청소년이 미성숙한 방어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숙한 방어양식에서 나타난 집단 간 차이는 탈북 청소년의 특수한 경험의 영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권위적이고 통제적이며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는 북한 사람들의 의식구조나 행동방식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민성길, 2001), 탈북 청소년 또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숙한 방어양식을 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이 어떠한 적응기제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이 깊으므로(Slavin, Rainer, McCreary & Growda, 1991; Kim, 1994), 이러한 맥락에서 탈북 청소년의 미성숙한 방어양식을 이해해 볼 수 있다.

한편, 탈북 청소년의 성숙한 방어양식의 사용이 미성숙한 방어양식의 사용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으로 새롭게 접근해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외상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이순형·진미정, 2006; 이순형, 2009; 전우택·유시은·엄진섭·김희진, 2006; 김현경, 전우택 2009).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이나 제3국에서 외상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사회적, 종교적, 개인적, 정신건강 요인 등의 영향을 받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이 호전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탈북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발달적으로 민감기에 있는 청소년이 변화에 더 적응적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탈북 청소년 또한 남한에서 경험하는 지지적 환경의 영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성숙한 방어양식을 발달시켰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V-2>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방어양식 차이

방어양식	탈북 청소년 (N=110)	남한 청소년 (N=151)	t
	M(SD)	M(SD)	
성숙한 방어양식	4.62(.70)	4.70(.65)	-.89
미성숙한 방어양식	4.18(.83)	3.52(.85)	6.26***

*** $p<.001$

3)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전반적 경향과 집단 간 차이는 <표 V-3>과 같다. 먼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탈북 청소년의 문제중심적 대처의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79점,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의 평균점수는 2.77점, 정서중심적 대처의 평균점수는 2.59점, 소망적 사고의 대처 평균점수는 2.58점이었다. 남한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의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50점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 중 가장 높았으며, 문제중심적 대처의 평균점수는 2.50점, 정서중심적 대처의 평균점수는 2.05점, 소망적 사고 대처의 평균점수가 2.25점이었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 모두 ‘어느 정도 그렇다’(2점), ‘꽤 그렇다’(3점) 사이의 점수 분포를 보였다. 또한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 모두 적극적 대처방식에 속하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의 평균점수가 소극적 대처방식에 속하는 정서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의 대처의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포함되는 하위요인 전체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문제중심적 대처는 탈북 청소년의 점수(M=2.79)가 남한 청소년의 점수(M=2.50)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5.10$, $p<.001$).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에서도 탈북 청소년의 점수가(M=2.77) 남한 청소년의 점수(M=2.59)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2.26$, $p<.05$). 정서중심적 대처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점수(M=2.59)가 남한 청소년의 점수(M=2.05)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t=7.11$, $p<.001$), 소망적 사고의 대처에서도 탈북 청소년의 점수(M=2.58)가 남한 청소년의 점수(M=2.25)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처럼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대처방식인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의 대처를 소극적 대처방식인 정서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의 대처보다 많이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탈북 청소년은 남한

<표 V-3>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

스트레스 대처방식	탈북 청소년 (N=110)	남한 청소년 (N=151)	t
	M(SD)	M(SD)	
문제중심	2.79(.44)	2.50(.46)	5.10***
사회적지지	2.77(.57)	2.59(.70)	2.26*
정서중심	2.59(.55)	2.05(.69)	7.11***
소망적사고	2.58(.47)	2.25(.48)	5.57***

* $p<.05$, *** $p<.001$

청소년보다 적극적, 소극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대처한다. 탈북 청소년은 탈북 과정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목표를 성취하였다는 점에서 삶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가 높은 집단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남한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대처방식을 습득했을 것이다. 탈북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남한 청소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는 탈북 청소년이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터득하게 된 나름의 적극적, 소극적 대처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2.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연구문제 2)

1)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은 <표 V-4>에 제시하였다.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가 부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내적귀인은 성숙한 방어양식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r=.53$, $p<.001$),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문제중심적 대처($r=.35$, $p<.001$), 정서중심적 대처($r=.23$, $p<.05$)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타인귀인은 성숙한 방어양식과 낮은 상관이 있었으며($r=.26$, $p<.01$), 미성숙한 방어양식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r=.72$, $p<.001$). 타인귀인은 정서중심적 대처($r=.27$, $p<.01$), 소망적 사고의 대처($r=.40$, $p<.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우연귀인은 성숙한 방어양식과 낮은 상관이 있었으며($r=.29$, $p<.01$), 미성숙한 방어양식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53$, $p<.001$). 우연귀인은 정서중심적 대처($r=.29$, $p<.01$), 소망적 사고의 대처($r=.40$, $p<.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탈북 청소년은 내적귀인을 할수록 성숙한 방어양식과 문제중심적 대처를 많이 사용한다. 반면에 타인귀인이나 우연귀인을 할수록 미성숙한 방어양식과 소망적 사고의 대처를 많이 한다.

방어양식과 스트레스 대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숙한 방어양식은 문제중심적 대처($r=.59$, $p<.001$),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r=.32$, $p<.01$), 정서중심적 대처($r=.38$, $p<.001$), 소망적 사고의 대처($r=.27$,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미성숙한 방어양식은 정서중심적 대처($r=.47$, $p<.001$), 소망적 사고의 대처($r=.63$, $p<.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탈북 청소년은 성숙한 방어양식을 사용할수록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처방법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반면, 미성숙한 방어양식을 사용할수록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망하는 소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4>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

N=110

	1	2	3	4	5	6	7	8	9
귀인성향									
1. 내적귀인	1.00								
2. 타인귀인	.11	1.00							
3. 우연귀인	.17	.62***	1.00						
방어양식									
4. 성숙한 방어양식	.53***	.26**	.29**	1.00					
5. 미성숙한 방어양식	.02	.72***	.53***	.22*	1.00				
스트레스 대처방식									
6. 문제중심	.35***	-.02	.13	.59***	-.01	1.00			
7. 사회적지지	.15	.02	-.01	.32**	.03	.67***	1.00		
8. 정서중심	.23*	.27**	.29**	.38***	.47***	.30**	.29**	1.00	
9. 소망적사고	.15	.40***	.40***	.27**	.63***	.16	.16	.67***	1.00

* $p < .05$, ** $p < .01$, *** $p < .001$

2)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은 <표 V-5>에 제시하였다.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가 부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내적귀인은 성숙한 방어양식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r=.43$, $p<.001$),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문제중심적 대처($r=.49$, $p<.001$), 정서중심적 대처($r=.34$, $p<.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타인귀인은 미성숙한 방어양식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r=.57$, $p<.001$), 소망적 사고의 대처($r=.49$, $p<.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우연귀인은 미성숙한 방어양식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54$, $p<.001$), 정서중심적 대처($r=.23$, $p<.01$), 소망적 사고의 대처($r=.47$, $p<.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남한 청소년은 내적귀인을 할수록 성숙한 방어양식과 적극적 대처방식인 문제중심적 대처를 많이 사용한다. 반면에 타인귀인을 할수록 미성숙한 방어양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인 소망적 사고를 많이 사용한다. 타인귀인과 마찬가지로 남한 청소년은 우연귀인을 할수록 미성숙한 방어양식을 많이 사용하며 소극적 대처방식인 정서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의 대처를 많이 한다.

방어양식과 스트레스 대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숙한 방어양식은 문제중심적 대처($r=.50$, $p<.001$),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r=.35$,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미성숙한 방어양식은 문제중심적 대처와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r=-.16$, $p<.05$), 소망적 사고의 대처($r=.53$, $p<.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남한 청소년은 성숙한 방어양식을 사용할수록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식을 하는 반면, 미성숙한 방어양식을 사용할수록 문제중심적 대처는 덜하며 소망적 사고의 대처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5>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

N=151

	1	2	3	4	5	6	7	8	9
귀인성향									
1. 내적귀인	1.00								
2. 타인귀인	-.16*	1.00							
3. 우연귀인	-.10	.68***	1.00						
방어양식									
4. 성숙한 방어양식	.43***	-.11	-.03	1.00					
5. 미성숙한 방어양식	-.16	.57***	.54***	-.04	1.00				
스트레스 대처방식									
6. 문제중심	.49***	-.11	-.15	.50***	-.16*	1.00			
7. 사회적지지	.34***	.11	.04	.35***	-.02	.45***	1.00		
8. 정서중심	-.08	.03	.23**	-.04	.11	.02	-.10	1.00	
9. 소망적사고	-.05	.49***	.47***	-.06	.53***	-.01	.11	.12	1.00

* $p < .05$, ** $p < .01$, *** $p < .001$

3.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 군집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연구문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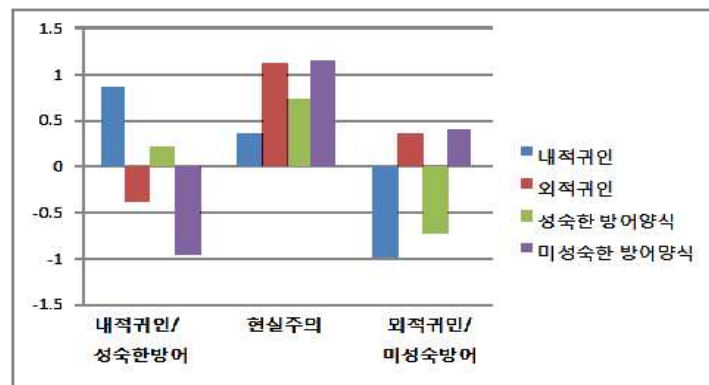
1)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 군집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 군집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 사용에 따른 군집을 살펴보기 위해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을 투입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⁴⁾.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 유형은 3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V-6>과 같다.

<표 V-6> 탈북 청소년의 최종군집별 중심점

	군집 1 (N=19) (내적귀인/성숙한방어)	군집 2 (N=38) (현실주의)	군집 3 (N=53) (외적귀인/미성숙방어)
내적귀인	.85	.36	-1.00
외적귀인	-.39	1.12	.36
성숙한 방어양식	.22	.74	-.74
미성숙한 방어양식	-.96	1.15	.40

군집변수는 표준화된 점수임: M=0, SD=1



<그림 V-1>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 유형별 군집

- 4)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귀인성향의 하위요인 중 타인귀인과 우연귀인을 외적귀인으로 투입하였다. 즉, 귀인성향은 내적귀인과 외적귀인으로, 방어양식은 성숙한 방어양식과 미성숙한 방어양식으로 총 네 가지 변수를 투입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K-평균 군집분석은 모든 대상을 겹치지 않게 배타적으로 분할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K-평균 군집분석은 군집하는 자료의 반복적 분할을 통해 계층구조가 없는 군집을 형성하며, 연속형 자료인 경우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용하며, 군집 중심이 군집을 대표한다고 가정한다(최연임, 2011)

군집 1은 내적귀인과 성숙한 방어양식이 평균이상인 집단이므로 ‘내적귀인/성숙한 방어’ 집단으로, 군집 2는 귀인성향과 방어양식 모두 평균이상인 집단이므로 ‘현실주의’ 집단으로, 군집 3은 외적귀인과 미성숙한 방어양식이 평균이상인 집단이므로 ‘외적귀인/미성숙방어’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제중심적 대처($F=11.47$, $df=2$, $p<.001$), 정서중심적 대처($F=10.69$, $df=2$, $p<.001$), 소망적 사고의 대처($F=19.41$, $df=2$, $p<.0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7>과 같다. 문제중심적 대처는 외적귀인/미성숙방어 집단의 점수($M=-.04$)가 다른 두 집단의 점수($M=.84$, $M=.66$)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정서중심적 대처는 현실주의 집단의 점수($M=.89$)가 다른 두 집단의 점수($M=.06$, $M=.29$)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내적귀인/성숙한방어 집단과 외적귀인/미성숙방어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두 집단 모두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것은 귀인성향이나 방어양식 유형과 상관없이 탈북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정서중심적 대처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7> 탈북 청소년의 군집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

하위요인	군집	N	M(SD)	F	사후검정 (Scheffé)
적극적 대처 방식	문제 중심	내적귀인/성숙한방어	19	.84(1.03)	b
		현실주의	38	.66(.79)	b
		외적귀인/미성숙방어	53	-.04(.82)	a
		합계	110	.35(.92)	
	사회적 지지	내적귀인/성숙한방어	19	.45(.92)	
		현실주의	38	.30(.89)	
		외적귀인/미성숙방어	53	-.05(.82)	
		합계	110	.16(.88)	
소극적 대처 방식	정서 중심	내적귀인/성숙한방어	19	.06(.79)	a
		현실주의	38	.89(.61)	b
		외적귀인/미성숙방어	53	.29(.80)	a
		합계	110	.46(.80)	
	소망적 사고	내적귀인/성숙한방어	19	-.49(1.16)	a
		현실주의	38	.92(.63)	b
		외적귀인/미성숙방어	53	.31(.78)	c
		합계	110	.38(.94)	

*** $p<.001$, a,b,c: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V-7>에서 현실주의 집단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주목하여 살펴보면, 이들은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정서중심적 대처, 소망적 사고의 대처 방식 모두에서 평균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것은 현실주의 집단에 속하는 탈북 청소년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자신의 내적, 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대처하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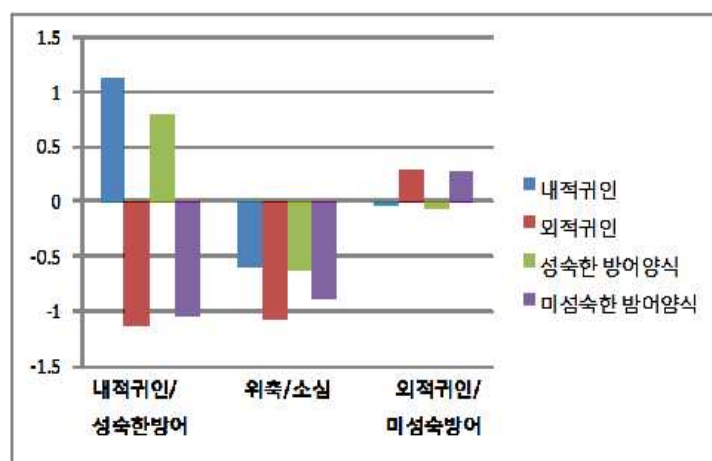
2)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 군집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 군집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앞에서의 방법과 동일하게 군집분석,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는 <표 V-8>과 같다. 군집 1은 내적귀인과 성숙한 방어양식이 평균이상인 집단이므로 ‘내적귀인/성숙한방어’ 집단으로, 군집 2는 귀인성향과 방어양식 모두 평균이하인 집단이므로 ‘위축/소심’, 군집 3은 외적귀인과 미성숙한 방어양식이 평균이상인 집단이므로 ‘외적귀인/미성숙방어’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V-8> 남한 청소년의 최종군집별 중심점

	군 집 1 (N=39) (내적귀인/성숙한방어)	군 집 2 (N=31) (위축/소심)	군 집 3 (N=81) (외적귀인/미성숙방어)
내적귀인	1.12	-.59	-.03
외적귀인	-1.14	-1.08	.29
성숙한 방어양식	.80	-.63	-.06
미성숙한 방어양식	-1.06	-.89	.28

군집변수는 표준화된 점수임: M=0, SD=1



<그림 V-2>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 유형별 군집

군집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제중심적 대처($F=24.80$, $df=2$, $p<.001$),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F=12.19$, $df=2$, $p<.001$), 소망적 사고의 대처($F=15.24$, $df=2$, $p<.00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9>와 같다. 문제중심적 대처는 내적귀인/성숙한방어 집단의 점수($M=.54$)가 다른 두 집단의 점수($M=-.78$, $M=-.44$)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는 각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망적 사고 대처에서는 외적귀인/미성숙방어 집단의 점수($M=.08$)가 다른 두 집단의 점수($M=-.58$, $M=-.83$)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V-9> 남한 청소년의 군집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

하위요인		군집	N	M(SD)	F	사후검정 (Scheffé)
적극적 대처 방식	문제 중심	내적귀인/성숙한방어	39	.54(.96)	24.80***	a
		위축/소심	31	-.78(.67)		b
		외적귀인/미성숙방어	81	-.44(.86)		b
		합계	151	-.26(.98)		
	사회적 지지	내적귀인/성숙한방어	39	.47(1.08)	12.19***	a
		위축/소심	31	-.70(.86)		b
		외적귀인/미성숙방어	81	-.17(1.00)		c
		합계	151	-.12(1.07)		
소극적 대처 방식	정서 중심	내적귀인/성숙한방어	39	-.51(.93)	1.53	
		위축/소심	31	-.45(.96)		
		외적귀인/미성숙방어	81	-.20(1.04)		
		합계	151	-.33(.10)		
	소망적 사고	내적귀인/성숙한방어	39	-.58(.85)	15.24***	a
		위축/소심	31	-.83(.92)		a
		외적귀인/미성숙방어	81	.08(.87)		b
		합계	151	-.28(.95)		

*** $p<.001$, a,b,c: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V-9>에서 위축/소심 집단에 주목하여 살펴보면, 이들은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정서중심적 대처, 소망적 사고의 대처 모두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것은 위축/소심 집단의 남한 청소년은 현실에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적극적인 대처방식도 소극적인 대처방식도 하지 않은 채 현실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남한 청소년과 비교하여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경향과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2세-19세 탈북 청소년 110명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한 청소년 15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설문 조사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은 다르다. 탈북 청소년은 남한 청소년에 비해 내적귀인은 더 적게 하였으며, 타인귀인이나 우연귀인은 탈북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이 하였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차이는 문화적 환경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의 많은 연구들은 북한 사회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주목하여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북한 사회구조는 개인의 욕구를 억압하고, 여러 가지 결핍과 통제를 참아야 하는 강압적인 특성을 가진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학교생활에서도 권위주의 문화가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의 부모의 권위 또한 절대적이고 순종을 강요하는 형태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순형 외 1998). 귀인성향의 차이는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이 그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것은 이후에도 남북 상호 간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은 전체적으로 타인귀인이나 우연귀인에 비해 내적귀인을 더 많이 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동독 출신자는 외적귀인을 많이 하며, 서독 출신자는 내적귀인을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Strateman, 1992; Timmer et al., 2005)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한 국가 내 서로 다른 사회체제라는 유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귀인성향 연구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탈북 청소년과 북한 사람의 차이와 우리나라의 집합주의 문화로 설명할 수 있다. 탈북 청소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선택하였으며, 생사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한에 정착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성취감을 경험하였다. 탈북 선택과 이후

경험의 차이는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이 실제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의 귀인성향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게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집합주의 의식이 높다는 점(이순형, 1996; 정태연, 2010)에서 독일의 문화와 차이를 보인다. 남한은 북한 사회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집합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이순형 외 2007)는 점에서 북한 사람과 부분적 유사성을 가진다. 이것은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은 근본적으로 동질적인 부분과 이질적인 부분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므로 두 집단을 ‘같다’ 또는 ‘다르다’와 같이 어느 한 방향으로만 단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은 동일한 수준의 성숙한 방어양식을 보이나, 미성숙한 방어양식은 다르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은 미성숙한 방어양식에 비해 성숙한 방어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성숙한 방어양식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성숙한 방어양식의 사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숙한 방어양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은 성숙한 방어양식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김정애, 1994), 궁극적으로 탈북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일상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윤숙, 2009). 외상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사회적, 종교적, 정신건강 요인 등의 긍정적 영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연구 결과(김현경 · 전우택, 2009; 전우택 외 2009)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탈북 청소년은 남한 청소년에 비해 미성숙한 방어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탈북 청소년은 남한 청소년과는 질적으로 다른 다양한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극복하였다. 그들은 다양한 위협요인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대처방식으로 미성숙한 방어양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은 적극적 대처방식을 소극적 대처방식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며, 탈북 청소년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남한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내적, 외적 자원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탈북 청소년은 남한 청소년에 비해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의 대처, 정서중심적 대처, 소망적 사고의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현상론적 입장은 문제중심적 대처나 정서중심적 대처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좋거나 나쁘다고 보지 않으며, 어느 한 가지 대처만을 사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대처방식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적응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Forsythe & Compas, 1987). 즉, 현실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각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보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주관적이지만 긍정적 왜곡 또는 회피가 더 적응적일 수 있다(조유수,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남한

청소년에 비해 탈북 청소년이 적극적, 소극적 대처방식이 모두 높은 것은 탈북 청소년이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내적, 외적 자원을 남한 청소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 모두 내적귀인을 할수록 성숙한 방어양식과 적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고, 타인귀인이나 우연귀인을 할수록 미성숙한 방어양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탈북 청소년은 성숙한 방어양식을 사용할수록 모든 적극적, 소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미성숙한 방어양식을 사용할수록 소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남한 청소년은 성숙한 방어양식을 사용할수록 적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미성숙한 방어양식을 사용할수록 적극적 대처를 적게 사용하고 소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두 집단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탈북 청소년은 성숙한 방어양식을 사용할수록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적극적 대처뿐만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 소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높은 감정 통제 능력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섯째, 탈북 청소년 중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이 모두 높은 집단은 전반적으로 높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보이며, 남한 청소년 중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이 모두 낮은 집단은 전반적으로 낮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보인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에 따른 군집분석을 통해 두 집단 간 상이한 군집이 확인되었다. 탈북 청소년에서는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현실주의’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도 모두 평균보다 높은 대처를 보였다. 반면, 남한 청소년에서는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위축/소심’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도 모두 평균보다 낮은 대처를 보였다. 즉, 현실주의 집단의 탈북 청소년은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자신의 내적, 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위축/소심 집단의 남한 청소년은 현실에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적극적인 대처방식도 소극적인 대처방식도 하지 않은 채 현실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레질리언스의 개념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Stewart와 동료들(1997)은 레질리언스를 ‘중대한 변화, 역경 또는 위협에 직면하여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으로,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며 개인과 환경의 보호요인들에 의해 향상된다’고 정의하였다. 레질리언스는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이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탈북 청소년의

적응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이순형 외 2007).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경험은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스트레스나 생활사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스트레스가 항상 부정적 영향력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갑작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추구하며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여서 강한 스트레스 사건은 개인으로 하여금 보다 성숙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Farran, 1997). 탈북 청소년은 남한에 정착하기까지 극심한 굶주림과 질병, 가족의 해체 및 이별, 고문 등 남한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다양한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였다. 그러한 경험의 극복은 탈북 청소년들의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웠을 것이다. 그들이 가지는 남다른 경험은 높은 수준의 내적, 외적귀인과 성숙한, 미성숙한 방어양식을 보이는 탈북 청소년 집단의 배경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높은 수준의 다양한 대처방식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2. 의의 및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의의가 있다.

첫째, 그동안 탈북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소수 사례의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와 실태조사의 형식으로 대부분 탈북 청소년의 부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대한 정책적, 교육적 프로그램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의식적인 귀인성향과 무의식적인 방어양식에 주목하여 그동안 질적 자료나 관찰로만 제시되고 논의되었던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차이를 양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입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실제 이 연구를 통해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귀인성향, 미성숙한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두 집단 모두 타인귀인이나 우연귀인에 비해 내적귀인을 많이 하며, 성숙한 방어양식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도 탈북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함을 확인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강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둘째, 이 연구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 방어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남한 청소년과 비교하여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두 집단 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며 남한 청소년과 동시에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는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남한 청소년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두 집단의 차이를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이 연구는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비교를 통해 탈북 청소년이 가진 강점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탈북 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그들의 부적응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본다면, 이제는 그들이 가진 강점에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앞서 설명한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연구 자료의 수집 문제이다. 탈북 청소년의 경우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제 3자를 통해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충분한 사전 교육을 통해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설문 방법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통제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닌다.

둘째, 비교 연구대상의 연령과 학교가 불일치한다. 동일한 연령의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 집단을 다수 표집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탈북 청소년의 경우, 탈북 과정에서의 학업 중단과 북한과의 학제 차이로 인해 남한 사회의 중학생 연령임에도 초등학교에 재학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연령과 학교 경험에 따른 차이를 통제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닌다.

셋째, 이 연구에서 탈북 청소년은 ‘탈북’이라는 공통적인 경험에 의해 구분되었지만, 탈북 과정에서의 동반 가족 유형이나 제 3국에서의 체류기간, 북송경험 유무 등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탈북 청소년의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귀인성향과 방어양식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이 전반적으로 높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함을 확인하였다. 탈북 청소년 내에서 이러한 집단이 가지는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탈북 과정상의 배경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탈북 과정의 배경에 따라 탈북 청소년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들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영란, 김혜영 (2000). 남북한 여성의 사회의식에 관한 비교연구 및 수렴방안. *아세아 여성 연구*, 39, 211-249.
- 김우석 (2004). 정서표현성, 자아방어기제 및 대처방식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애 (1994). 사회적 지지 자기 지각과 자아방어기제 불안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경 · 전우택 (2009)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이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0(2), 363-397.
- 독고순 (1999).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적응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민성길 (2001). 북한사람의 인격구조. *연세대학교 통일연구*, 5(2), 5-26.
- 민하영 (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윤숙 (2009).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해결방안. *교정담론*, 3(2), 1-23.
- 박정서 (2011).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 비교 연구 :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희석 · 오상우 · 손정락 (1993).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역기능적 태도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2(2), 179-196.
- 심원 (2006). 새터민 청소년들의 정체성 교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귀덕 (1986). 귀인성향 · 지각학급풍토 및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학습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영 (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 연구*, 13(1), 175-224.
- 이순형 (1996). 가족주의와 집합주의, 성취지향성과 양육 가치간의 관계-중류층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국사회학회지*, 30: 545-573.
- 이순형 · 조수철 · 김창대 · 진미정 (2007). 탈북 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순형 · 이강이 (1991). 청소년이 사용하는 방어양식과 관련 변수. *한국청소년연구*, 6, 113-128.
- 이순형 · 이기춘 · 이기영 · 이은영 · 김대년 · 박영숙 · 최연실 (1998). 북한의 아동 양육 실태 및 관련 변수. *아동학회지*, 20(4), 43-59.
- 이정우 (2006).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사회의식 비교 연구: 분배정의와 평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향규 (2007).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 적응 실태와 과제. *인간연구*, 12, 7-32.
- 이형초 · 최정윤(1993) 통제소재와 사회적 문제해결과의 관계-중년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2), 152-160.
- 이혜영 (2007).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의 도덕추론과 도덕판단.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지영 · 신현균 · 김희연 (2010).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스트레스,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과 전반적인 심리 증상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631-638.
- 정향진 (2005).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11(1), 81-111.
- 정진경 (2002).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탈북자 자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163-177.
- 정태연 (2010).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대한 역사·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3), 53-76.
- 전우택 · 유시은 · 엄진섭 · 김희진(2009).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7년 추적 연구-생활과 교육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13(1), 127-157.
- 조남국 (1993).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사회적 지위의 획득 수단에 관한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1, 155-174.
- 조영아 (2003). 남한 내 북한 이탈 주민의 자아방어기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영아 · 전우택 · 민성길(2004). 남한 내 북한 이탈 주민의 자아방어기제 연구. *대한 신경정신의학회지*, 43(3), 345-359.
- 조용환 (1997). 사회화와 교육: 부족사회 문화전승 과정의 교육학적 재검토. 서울: 교육교학사.
- 조유수 (2009). 조기유학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정민 (2006). 북한이탈주민의 귀인 양식: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

- 학회지: 사회문제*, 12(3), 1-22.
- 최연임 (2011). 이분화를 활용한 K-평균 군집화의 향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일부 (2012). 북한이탈주민 현황 통계.
- 홍창형 (2005).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3년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ramson, L. Y., Garber, T., & Seligman, M. E. P. (1980). Learned helplessness: An attributional analysis. In J. Garber & M. E. P. Seligman (eds.), *Human helplessness: Theory and applic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Abramson, L., Seligman, M., & Teasdale, J.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1), 49-74.
- Atkinson, D. R., & Gim, R. H. (1989). Asian-American Cultural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 Mental Health Servi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2), 209-212.
- Band, E. B., & Weisz, J. R. (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247-253.
- Bond, M., Gardner, S., Christian, J., & Sigal, J. (1983). Empirical study of self-rated defense styl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0, 333-338.
- Bond, M., Guzder, J., Paris, J., & Zweig-Frank, H. (1996). Defense styles, hostility and psychological risk factors in male patients with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4(3), 153-158.
- Brewer, M. (1988). *A dual process model of impression formation*. Lawrence Erlbaum, Hillsdale, NJ.
- Breen, L. J., Endler, N. S., Prociuk, T. J., & Okada, M. (1978). Person x situation interaction in personality prediction: Some specifics of the person fact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567-568.
- Capozza, D., & Manganelli Rattazzi, A. (1999). Stereotypes and attribution processes in a multi ethnic Italian province.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9(3), 231-235.

- Carroll, J. S. (1978). The effect of imaging an event on expectations for the event: An interpretation in terms of the availability heuristic.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4*, 88-96.
- Conte, H. R., & Plutchik, R. (1989). Measuring emotions and their derivative: personality traits, ego defense, and coping styles. In Wetzler, S., & Katz, M. M. (eds.), *Contemporary approaches to psychological assessment*. New York: Brunner/ Mazel. Inc.
- Cooper, S. H., & Perry, J. C. (1992). What do cross-sectional measures of defense mechanisms predict? In G. E. Vaillant (Ed.), *Ego mechanisms of defense: A guide for clinicians and researches*, (pp. 195-21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Crammer, P. (1991). The development of defense mechanisms. *Journal of Personality, 55*, 597-614.
- Cramer, P. (2000). Defense mechanisms in psychology today: Further processes for adaptation. *American Psychologist, 55*(6), 637-646.
- Davis, W. L., & Phares, E. J. (1967). Internal-external control as a determinant of information-seeking in a social influence sit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35*, 547-561.
- Delucchi, F., Fossate, A., Lingiardi, V., Lonati, C., Maffei, C., & Vanzuli, L. (1999). Defense mechanism and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7*(4), 224-248.
- Devine, P.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1), 5-18.
- Erickson, S., Feldman, S. S., & Steiner, H. (1997). Defense reactions and coping strategies in normal adolescen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8*, 45-56.
- Farran, C. (1997). Theoretical Perspectives Concerning Positive Aspects of Caring for Elderly Personal with Dementia: Stress/ Adaptation and Existentialism. *The Gerontologist, 37*(2), 250-256.
- Forsythe, C. J., & Compas, B. (1987). Interaction of cognitive appraisals of stressful events and coping. *Cognitive Behavior Therapy, 11*, 473-485.
- Fraley, R., & Brumbaugh, C. (2007). Adult attachment and preemptive defenses: Converging evidence on the role of defensive exclusion at the level of

- encoding. *Journal of Personality*, 75(5), 1033-1050.
- Freud, (1897). Letters 58. In the concept of identification in the work of Freud. Ferenczi, and Abraham. *Psychoanal Qua L VI*.
- Fry, P. S., & Ghosh, R. (1980). Attribution of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11(3), 343-363.
- Gross, J., & Munoz, R. (1995). Emotion regulation and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2(2), 151-164.
- Gilbert, D., & Malone, P. (1995). The correspondence bias. *Psychological Bulletin*, 117, 21-21.
- Haan, N. (1963). Proposed model of ego functioning: Coping and defense mechanisms in relationship to IQ change. *Psychology Monographs*, 77, 1-23.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Wiley New York.
- Husaini, B. A., & Neff, J. A. (1981). Social cla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The role of life change events and locus of control.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47-169.
- Goodyer, I. (1990). Family relationships, life events and childhoo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1(1), 161-192.
- Kaplan, H. B. (1996).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tress. In H. B. Kaplan (Ed), *Psychological stress: Perspectives on structure, theory, life-source and methods (pp.3-24)*. San Diego: Academic Press.
- Kim, L. S., Sandler, I. N., & Tein, J. Y. (1997). Locus of control as a stress moderator and mediator in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115-129.
- King, C.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ional style, meaning in life, combat exposure,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Kitayam,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45-1267.
- Kwon. P., & Lemon, K. E. (2000) Attributional Style and Defense Mechanisms: A Synthesis of Cognitive and Psychodynamic Factors in Depression.

-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6), 723-735.
- Lau, J., Rijdsdijk, F., & Eley, T. (2006). I think, therefore I am: A twin study of attributional style i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7), 696-703.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fcourt, H. M. (1982). *Locus of Control: Current trends of theory and research*.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Lemerise, P. J., & Arsenio, W. F. (2000).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es and cognition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71(1), 107-118.
- Lee, F., Hallahan, M., & Herzog, T. (1996). Explaining real life events: How culture and domain shape attribu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732-741.
- Lee, J. W., Yates, J. F., Shinotsuka, H., Singh R., Onglatco, M. L. U., Yen, N. S., Gupta, M., & Bhatnagar, D. (1995).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overconfidence. *Asian Journal of Psychology*, 1, 63-69.
- Levenson, H. (197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I, P, and C scales- A multidimensional view of Locus of Control. *Proceedings from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vention: Montreal, Canada*.
- Levenson, H. (1974). Activism and powerful other: Distinctions within the concept of internal-external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38, 377-383.
- Levenson, H. (1981). Differentiating among internality, powerful others and chance. *Research with the Locus of Control Construct*, 1, 15-66.
- Markus, H. (1977).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2), 63-78.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arkus, H., & Sientis, K. (1982). The self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1, 41-70.
- Morris, M., &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949-949.
- Murphy, C. B., & Eisenberg, N. (1997). Young children's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ing and from the kibbutz system. *Child Development*, 49, 85-95.
- Peterson, C., Seligman, M., & Vaillant, G. (1988). Pessimistic explanatory style is a risk factor for physical illness: A thirty-five-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1), 23-27.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locus of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1), 300-303.
- Slavin, L. A., Rainer, K. L., McCreary M. L., & Gowda, K. K (1991). Toward a multicultural model of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 156-163.
- Steiner, H., Erickson, S., MacLean, P., Medic, S., Plattner, B., & Koopman, C. (2007). Relationship between defenses, personality, and affect during a stress task in normal adolescen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8(2), 107-119.
- Stewart, M., Reid, G., Mangham, C. (1997). Fostering children's resilience.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2(1), 21-31.
- Strateman, I. (1992). 신연방주에서 경제적 도양의 심리적 조건들. 통일원 편역, 독일통합과 체제전환. 서울:통일원.
- Timmer, E., Westerhof, G., & Dittmann-Kohli, F. (2005). 'When looking back on my past life I regret...': Retrospective regret in the Second Half of Life. *Death studies*, 29(7), 625-644.
- Vaillant, C. O., & Vaillant, G. E. (1990). Natural history of male psychological health: XII. A forty-five year study of successful aging at age 65.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 31-37.
- Valliant, G. E. (1971). Theoretical hierarchy of adaptive ego mechanisms : A 30-year follow up men selected for psychological health.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4, 107-118.
- Valliant, G. E. (1976). Natural history of male psychological health: V. The relation of choice of ego mechanis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3, 535-545.

- Vaillant, G. E. (1977). *Adaptation to life*. Boston: Little. Brown.
- Vaillant, G. E. (1994). Ego mechanisms of defense and personality psyc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1), 44-50.
- Weiner, B. A. (1972). *Theories of motivation: From mechanism to cognition*. Chicago: Markhann.
- Weiner, B. A. (1979). The cognition-emotion process in achievement-related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211-1220.

<부록 1>

질문지(탈북 청소년용)

안녕하십니까?

조사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청소년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행동을 파악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생활하면서 느끼는 생각과 행동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자료는 오직 연구목적에만 사용되며 응답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모든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이라도 응답을 빠뜨리면 질문지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가운데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아동학전공

석사과정 김현정

I.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의 질문들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보기의 번호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가 없는 문항은 ()안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년 ()월

3. 현재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① 초등학교(학년) ② 중학교(학년) ③ 고등학교(학년) ④ 검정고시 준비 중
⑤ 대안학교(학년) ⑥ 직업훈련생 ⑦ 학교를 다니지 않음 ⑧ 기타 ()

4. 북한을 떠난(탈북)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5. 남한에 언제 입국하였습니까? ()년 ()월

6.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 ① 서울 ()구 ()동 ② 경기도 ③ 기타

7. 지금 남한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친아버지 ② 친어머니 ③ 형제자매 ④ 남한의 양부모 ⑤ 친척 ⑥ 단독
⑦ 후견인(선생님 포함) 및 보호시설(기숙사 포함) ⑧ 남한의 친한 친구나 선배
⑨ 북한의 친한 친구나 선배

8. 종교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8-1번으로) ② 없다. (→ 9번으로)

8-1. 있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원불교 ⑤ 기타 ()

9. 자주 왕래하며 마음의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0. 자주 왕래하며 마음의 의지가 되는 모임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10-1번으로) ② 없다. (→ 11번으로)

10-1 있다면 어떤 단체입니까?

- ① 종교단체 ② 학원, 공부방 ③ 탈북자 단체 ④ 기타 ()

11. 현재 남한에서 살면서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 ① 청소년 문화적응 ② 학교 적응 ③ 경제적 문제 ④ 사회적 관계망(친구 및 대인관계)
⑤ 기타 ()

12. 청소년문화 적응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 ① 놀이문화 ② 언어적응 ③ 친구관계 ④ 이성관계 ⑤ 핸드폰, 컴퓨터 등 기기사용
⑥ 기타 ()

13. 학교 적응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 ① 남북한 교육체계 및 내용의 다름으로 인한 학력차이 문제 ② 낮은 취학에 따른 연령의 문제 ③ 상급학교 진학 시 진로지도의 문제 ④ 교사와의 관계 ⑤ 기타 ()

14. 남한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모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남한의 양부모 ② 친척 ③ 친부모 ④ 형제자매 ⑤ 선생님 ⑥ 전문가(의료인, 법률가)
⑦ 북한 출신 친구, 선후배 ⑧ 남한 출신 친구, 선후배 ⑨ 종교단체사람 ⑩ 사회단체사람
⑪ 정부 및 공공기관 사람 ⑫ 이웃 ⑬ 기타 ()

II. 다음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에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선택하여 체크(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아 니 다	아 니 다	약 간 아 니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정 말 그 렇 다
1	내가 리더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나의 능력에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에 의해 좌우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내 인생에서 발생하는 일은 힘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자동차 사고는 대부분 내 운전 실력에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일단 계획을 세우면, 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가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운이 생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는 보통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내 능력이 좋더라도,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나는 높은 자리를 맡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친구를 많이 사귄 수 있느냐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에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나는 종종 세상일이 정해진 대로 되어 간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내 삶은 주로 힘 있는 사람에 의해 통제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자동차 사고를 당하느냐는 대부분 운에 달려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나의 의견과 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 내 뜻대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언제나 현명하지는 않다. 많은 일들이 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내가 리더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그때의 운에 달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중요한 사람들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면, 나는 아마도	①	②	③	④	⑤	⑥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없을 것이다.						
18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나는 보통 내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	자동차 사고를 당하느냐 아니냐는 다른 운전자에게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2	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힘 있는 사람들의 생각(바라는 바)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내 삶은 내 스스로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4	내가 친구를 적게 사귀느냐 혹은 많이 사귀느냐는 주로 운에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Ⅲ. 다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행동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각 문항의 내용이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중간이다	조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귀찮은 일이 생기면 자주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실망하면 어린애처럼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내 탓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내 생각보다 시험을 잘 못 보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잘 웃어넘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불쾌한 표시를 안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면접시험과 같은 어려운 일을 앞두면 그 경우를 미리 상상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면 머리가 아파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불안할 때 뭔가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남을 돕는데서 기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늘 불공평하게 대접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우울해지면 신나는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해서 풀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만약 내 기분을 나타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내 기분을 감출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자꾸만 똑같은 식의 좌절상황에 빠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매우 빈정거리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나는 힘든 일을 앞두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사람들은 내가 자주 종로에서 뽀맏고 남대문에서 화를 낸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나는 다른 사람한테서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듣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나는 흔히 괴로운 상황에서도 재미있는 점을 찾아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나는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친근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을 경계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나는 자주 충동적으로 행동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나는 시험과 같이 힘든 일을 앞두면 뱃속이 거북해지거나 아파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나는 감정이 상하면 드러내놓고 공격적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윗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면, 나도 실수를 하거나 일을 천천히 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나는 억지로 먹느니 차라리 굶는 게 낫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나는 다 큰 애가 철없이 어린 짓을 한다는 말을 들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사람들은 내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나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운동, 독서, 음악 감상과 같은 취미활동을 해서 불안을 없앤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내 친구들은 내가 재미있는 아이라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것을 해결할 시간이 생길 때까지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만약 슬픈 일이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이 닥쳤을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나는 일이 잘 안되면 몸이 아파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나는 누구든 내게 도움을 청하면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도와주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 나는 누구한테 혼이 나서 기분이 나쁘면 동생이나 친구에게 화를 내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 다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는 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솔직하게 해당란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	활동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따른다.	①	②	③	④
3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음단계의 준비에 전념한다.	①	②	③	④
4	일이 잘 해결되도록 무언가를 변화시킨다.	①	②	③	④

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다른 대책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6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거나 성장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7	문제를 겪고 나서 좋은 경험을 얻는다.	①	②	③	④
8	새로운 신념을 얻는다.	①	②	③	④
9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재발견한다.	①	②	③	④
10	나 자신의 어떤 점을 바꾼다.	①	②	③	④
11	그 일에서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12	그 상황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누군가와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13	문제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①	②	③	④
14	존경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충고해 달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15	내 자신의 느낌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16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이해를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17	전문적인 도움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18	자신을 반성하거나 교훈을 얻는다.	①	②	③	④
19	내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음을 깨닫는다.	①	②	③	④
20	다음 경우는 이번과 다를 것이라고 자신에게 다짐한다.	①	②	③	④
21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사과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한다.	①	②	③	④
22	그 일이 사라지거나 끝나버리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23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24	일이 어떻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이나 소망을 한다.	①	②	③	④
25	대체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한다.	①	②	③	④
26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7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	①	②	③	④
28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본다.	①	②	③	④
29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한다.	①	②	③	④
30	그 일에 사로잡혀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1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2	운으로 돌린다: 때로는 운이 나쁠 때도 있으니까.	①	②	③	④

※ 감사합니다 ※

<부록 2>

질문지(남한 청소년용)

안녕하십니까?

조사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청소년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행동을 파악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생활하면서 느끼는 생각과 행동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자료는 오직 연구목적에만 사용되며 응답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모든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이라도 응답을 빠뜨리면 질문지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가운데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아동학전공

석사과정 김현정

I.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의 질문들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보기의 번호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가 없는 문항은 ()안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년 ()월
3. 현재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① 중학교(학년) ② 고등학교(학년) ③ 검정고시 준비 중
4.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① 서울 ()구 ()동 ② 경기도 ③ 기타

5. 종교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5-1번으로) ② 없다. (→ 6번으로)

5-1. 있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원불교 ⑤ 기타 ()

6. 자주 왕래하며 마음의 의지가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7. 자주 왕래하며 마음의 의지가 되는 모임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7-1번으로) ② 없다. (→ 8번으로)

7-1 있다면 어떤 단체입니까?

- ① 종교단체 ② 학원, 공부방 ③ 기타 ()

8. 현재 느끼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 ① 청소년문화 적응 ② 학교 적응 ③ 경제적 적응 ④ 사회적 관계망(친구 및 대인관계)
⑤ 없음 ⑥ 기타 ()

9. 청소년문화 적응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 ① 놀이문화 ② 또래와의 관계 ③ 이성관계 ④ 없음 ⑤ 기타 ()

10. 학교 적응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 ① 또래와의 관계 ② 교사와의 관계 ③ 학업문제 ④ 기타 ()

11. 어려움을 느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있다. (→11-1번으로) ② 없다. (→12번으로)

11-1.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번호에 모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아빠 ② 엄마 ③ 형제자매 ④ 친구 ⑤ 선생님 ⑥ 종교단체사람
⑦ 사회단체사람 ⑧ 기타 ()

12. 현재 가족의 한 달 총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월 100만원 이하 ② 월 101만원 이상 ~ 200만원 이하
③ 월 201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④ 월 300만원 이상 ⑤ 월 400만원 이상

II. 다음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에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선택하여 체크(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아 니 다	아 니 다	약 간 아 니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정 말 그 렇 다
1	내가 리더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나의 능력에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에 의해 좌우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내 인생에서 발생하는 일은 힘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자동차 사고는 대부분 내 운전 실력에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일단 계획을 세우면, 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가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운이 생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는 보통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내 능력이 좋더라도,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나는 높은 자리를 맡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친구를 많이 사귄 수 있느냐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에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나는 종종 세상일이 정해진 대로 되어 간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내 삶은 주로 힘 있는 사람에 의해 통제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자동차 사고를 당하느냐는 대부분 운에 달려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나의 의견과 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 내 뜻대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언제나 현명하지는 않다. 많은 일들이 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내가 리더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그때의 운에 달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중요한 사람들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면, 나는 아마도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나는 보통 내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	자동차 사고를 당하느냐 아니냐는 다른 운전자에게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2	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힘 있는 사람들의 생각(바라는 바)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내 삶은 내 스스로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4	내가 친구를 적게 사귀느냐 혹은 많이 사귀느냐는 주로 운에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Ⅲ. 다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행동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각 문항의 내용이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중간이다	조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귀찮은 일이 생기면 자주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실망하면 어린애처럼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내 탓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내 생각보다 시험을 잘 못 보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잘 웃어넘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불쾌한 표시를 안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면접시험과 같은 어려운 일을 앞두면 그 경우를 미리 상상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면 머리가 아파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불안할 때 뭔가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남을 돕는데서 기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는 늘 불공평하게 대접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우울해지면 신나는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해서 풀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만약 내 기분을 나타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내 기분을 감출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자꾸만 똑같은 식의 좌절상황에 빠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매우 빈정거리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나는 힘든 일을 앞두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사람들은 내가 자주 종로에서 뽀맏고 남대문에서 화를 낸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나는 다른 사람한테서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듣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나는 흔히 괴로운 상황에서도 재미있는 점을 찾아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나는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친근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을 경계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나는 자주 충동적으로 행동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나는 시험과 같이 힘든 일을 앞두면 뱃속이 거북해지거나 아파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나는 감정이 상하면 드러내놓고 공격적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윗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면, 나도 실수를 하거나 일을 천천히 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나는 억지로 먹느니 차라리 굶는 게 낫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나는 다 큰 애가 철없이 어린 짓을 한다는 말을 들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사람들은 내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나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운동, 독서, 음악 감상과 같은 취미활동을 해서 불안을 없앤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내 친구들은 내가 재미있는 아이라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것을 해결할 시간이 생길 때까지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만약 슬픈 일이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이 닥쳤을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나는 일이 잘 안되면 몸이 아파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나는 누구든 내게 도움을 청하면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도와주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 나는 누구한테 혼이 나서 기분이 나쁘면 동생이나 친구에게 화를 내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 다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는 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솔직하게 해당란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 다	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	활동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따른다.	①	②	③	④
3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음단계의 준비에 전념한다.	①	②	③	④
4	일이 잘 해결되도록 무언가를 변화시킨다.	①	②	③	④

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다른 대책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6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거나 성장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7	문제를 겪고 나서 좋은 경험을 얻는다.	①	②	③	④
8	새로운 신념을 얻는다.	①	②	③	④
9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재발견한다.	①	②	③	④
10	나 자신의 어떤 점을 바꾼다.	①	②	③	④
11	그 일에서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12	그 상황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누군가와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13	문제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①	②	③	④
14	존경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충고해 달라고 한다.	①	②	③	④
15	내 자신의 느낌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16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이해를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17	전문적인 도움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18	자신을 반성하거나 교훈을 얻는다.	①	②	③	④
19	내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음을 깨닫는다.	①	②	③	④
20	다음 경우는 이번과 다를 것이라고 자신에게 다짐한다.	①	②	③	④
21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사과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한다.	①	②	③	④
22	그 일이 사라지거나 끝나버리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23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24	일이 어떻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이나 소망을 한다.	①	②	③	④
25	대체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한다.	①	②	③	④
26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7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	①	②	③	④
28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본다.	①	②	③	④
29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한다.	①	②	③	④
30	그 일에 사로잡혀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1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2	운으로 돌린다: 때로는 운이 나쁠 때도 있으니까.	①	②	③	④

※ 감사합니다 ※

ABSTRACT

Stress coping strategies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South Korea according to attribution style and defense style

Kim, Hyun Ju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the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South Korea and South Korean adolescents' overall tendency and differences in using attribution style, defense style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2) to investigate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South Korea and South Korean adolescents' correlation of attribution style, defense style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3) to investigate the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South Korea and South Korean adolescents' stress coping strategies depending on attribution style and defense style.

Participants were 110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South Korea aging from 12 to 19-year-old and 151 South Korean adolescents aging 15 and 18-year-old recruited from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survey was made with a questionnaire designed to investigate attribution style, defense style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The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the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one sample t-test, Pearson's correlations, K-mean cluster, one way ANOVA.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used less internal attribution but more powerful others attribution and chance attribution than South Korean adolescents. Both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and South Korean adolescents used more internal attribution than powerful others attribution and chance attribution.

2.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used more immature defense style than South Korean adolescents. Wherea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ature defense style between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and South Korean adolescents.

3.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degree of problem focused, social support, emotion focused and wishful thinking coping strategy than South Korean adolescents.

4.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ternal attribu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mature defense style, problem focused and emotion focused coping strategy. powerful others attribution and chance attribution have a low correlation with mature defense style and high correlation with immature defense style. Additionally, Powerful others attribution and chance attribu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emotion focused and wishful thinking coping strategy. Mature defense style show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with all sub-factors of coping strategies and immature defense style was positively related to emotion focused and wishful thinking coping strategy. In case of South Korean adolescents, internal attribu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mature defense style, problem focused and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y. Powerful others attribution is predicted with immature defense style and wishful thinking coping strategy. Besides, chance attribution is predicted with immature defense style, emotion focused and wishful thinking coping strategy. Mature defense style show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with problem focused and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y. However, Immature defense style was negatively related to problem focused coping strategy and negatively related to wishful thinking coping strategy.

5. Three distinct groups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emerged from the analysis. They were named as internal attribution/mature defense, realism

and external attribution/immature defense types. External attribution/immature defense group showed less problem focused coping strategy than the other two groups. Realism group showed more emotion focused coping strategy than the other two groups. South Korean adolescents also divided into three distinct groups by attribution style and defense style. They were named as internal attribution/mature defense, withdrawal and external attribution/immature defense types. Internal attribution/mature defense group showed more problem focused coping strategy than the other two groups. External attribution/immature defense group showed more wishful thinking coping strategy than the other two groups. When it came to the distinct group between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and South Korean adolescents, they were realism and withdrawal group.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realism group with high degree of attribution style and defense style than average showed high degree of all sub-factors of coping strategies.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n adolescents' withdrawal group with low degree of attribution style and defense style than average showed low degree of all sub-factors of coping strategies than averag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 in stress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attribution style and defense style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 in South Korea. Also, it verifies that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strength which are flexible in responding to stressful situation.

keywords: North Korean child defector, attribution style, defense style, stress coping strategy

student number: 2007-23282